

보도	2026.6.24.(수) 9:30	배포	2026.6.23.(화)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재훈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박기현 (02-3145-7702)

회계투명성 제고 및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 개최

I 세미나 개요

-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은 한국회계학회(주최), 국회, 금융위, 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상장사 평균 20년)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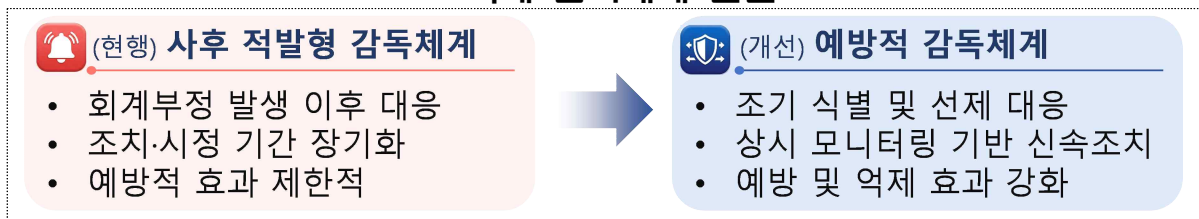
- ☑ 일시 및 장소 : '26. 6. 24.(수), 금융감독원 2층 강당
- ☑ 참 석 자
 - 【금 감 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이재훈 회계감리1국장
 - 【정 무 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계학회】 김기영 회계학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박경진 명지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김정택 단국대 교수
 - 【금 용 위】 류성재 회계제도팀장
 - 【기업계·회계업계】 강경진 상장협 정책2본부장, 오기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

시간	행사 내용
9:30 ~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감리체계의 실효성 진단과 개선방안 (발표자: 박경진, 오명전 교수) ▶ 종합 토론 (좌장: 박종성 교수) ▶ 질의 응답

II 주요 내용

-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자본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며
 - 회계오류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회계 심사·감리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잡힌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
 - 이번 세미나가 회계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
 -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회계 감독체계 전환>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축사를 통해 회계부정이 투자자 피해와 시장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
 -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심사·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을 높이 평가하며, 회계부정의 신속한 적발·조치가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을 함께 강화할 것으로 기대
 -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연구진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 및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 전문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한 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

<연구발표 주요 내용>

구 분	현재	개선 방향
감리 주기	상장사 평균 20년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감리 전담 부서	2개 부서	4개 부서(2개부서 추가)
감리 수단	임의조사	심사는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
상장폐지로의 연계	감리 결과 연계 미흡	감리 결과를 연계한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에 공감하며, 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
- * 감리대상 기업을 위험기반으로 다층 구분하고, 각 구분그룹별로 심사주기를 차등화
- 한편, 급격한 주기 단축(목표: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III | 향후 계획

-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감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 *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
- 회계 심사·감리 인력 확충, 감리수단 고도화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은 속도감 있게 검토·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 학계, 회계업계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